



주 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부활 제 2 주일”	2009년 4월 19일
복음 묵상:	[요한 20,19-31]	[사도 4,32-35]	[1 요한 5,1-6]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셨습니다.(19 절)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습니다.(20 절)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23 절) 그런데 제자들이 토마스에게 “우리는(복수) 주님을 뵈었소”라고 말합니다(25 절) 하지만 토마는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소.'

토마스는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동료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뵈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평화를 얻었다면, 부활을 목격했다면 왜 이렇게 골방에 처박혀 있는가? 왜 문을 열고 당당하게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또 그것을 믿는다면 뭔가 달라져야하지 않는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부활을 체험한 동료들이 달라진 모습이라도 봐야 내가 달라질 것이 아닌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삶으로 증거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토마스가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애당초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다락방에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토마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 내 남편, 내 이웃....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토마스는 예수님을 직접 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뵈었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1독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목숨의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위해 무엇을 내어 놓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 장 16 절) 아멘

(마산 임성진 신부님 강론에서)



◆ 예언 말씀.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앞을 보지 못하여도 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도 내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해도 좋다. 언제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내 앞에 있고 나 또한 너의 안에 있으니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그것은 보는 시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원하는 것과 내가 여러분의 입장이 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과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더욱 더 성장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단계 한단계 더욱 더 올라가게 될 때 여러분과 나의 시각은 동일해 질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에 대해서 힘들어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동일한 시각으로 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열 두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토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 보아라. 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 없이 행하셨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분 명상

♡행복과 고난은 쌍둥이♡

* '자니'님 글에서 옮김 *

당신에게 지금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당신에게 지금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불청객이라 여기고 꺼립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이것들이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당신에게 찾아온 이유는 과연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에게 고난이나 아픔
또는 시련으로 변장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삶이 우리를 모질게 만들고 아프게
할 때 당신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있다.

이것은 고난이다,이것은 불운이다,가 아니라
이것을 훌륭하게 견디어 내면
그것이 곧 행복이다,라는 것이다.



오늘의 말씀 사랑: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골로 3,12).”